



의료기기 Analyst 신민수 alstn0527@kiwoom.com

## 뷰노(338220)

## BEP 달성과 미국 진출, 두 마리 토끼를 노리는 '24년 3분기

## ◎ 2023년 연간 잠정 실적 발표

>> 2023년 잠정 연결 실적 매출액 132.8억 원(YoY +60.4%; 키움 추정치 대비 -12.0%)

>> 영업이익 -163.3억 원(YoY 적지, OPM -123.0%; 키움 추정치 대비 -36.5%)

>> 당기순이익 -162.8억 원(YoY 적지, NPM -122.7%; 키움 추정치 대비 -31.6%)

>> 4Q23 잠정 연결 실적 매출액 49.25억 원(YoY -19.0%, QoQ +38.0%; 키움 추정치 대비 -20.4%)

>> 영업이익 -48.7억 원(YoY 적전, QoQ 적지, OPM -98.8%; 키움 추정치 대비 -322.4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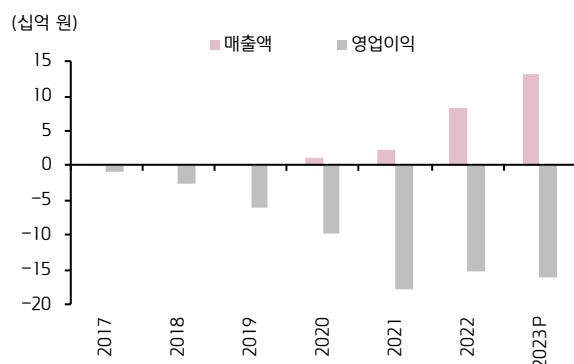
>> 당기순이익 -78.4억 원(YoY 적전, QoQ 적지, NPM -159.2%; 키움 추정치 대비 -168.0%)

>> 당사 추정치 대비 매출액 하회했으나, 주력 제품인 심정지 예측 솔루션 'DeepCARS'의 4Q23 분기 매출액은 36.5억 원(YoY +435.4%, QoQ +38.2%) 수준으로 추정됨

>> 이익 측면에서는 4Q23에 미국 FDA 허가 서류 처리 과정에서 일회성으로 비용이 크게 발생하며 당사 추정치를 크게 하회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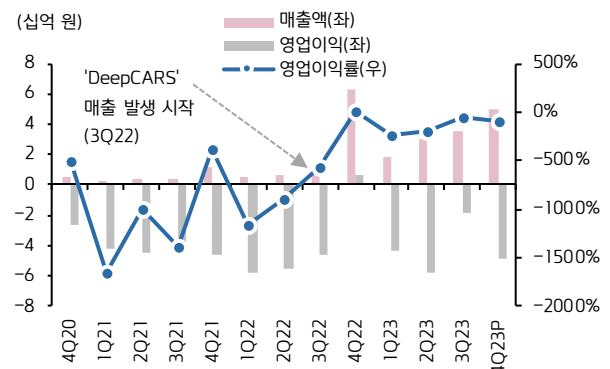
>>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며, 주력 제품 'DeepCARS'가 3Q24에 미국 FDA 허가를 획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

## 뷰노 연결 실적 추이 및 전망



자료: QuantiWise, 뷰노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## 뷰노 분기 실적 추이 및 전망



자료: QuantiWise, 뷰노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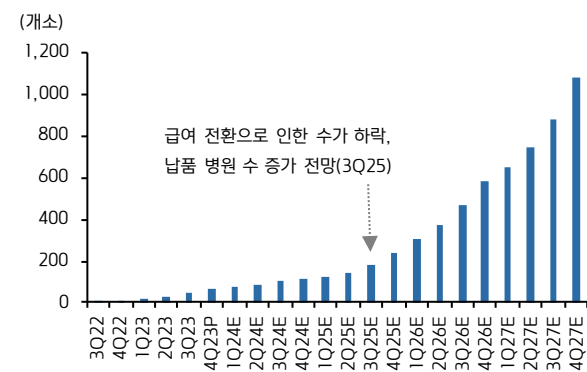
## ◎ 제일 중요한 이벤트는 '24년 3분기에

>> 2가지 측면에서 '24년 3분기는 동사에게 아주 중요한 시기

1) 분기 BEP 달성: 지난 1월 말 언론 보도를 통해 국내 병원에서 'DeepCARS'를 적용할 수 있는 병상 수가 28,000개를 돌파했다고 밝힘 → 당사 추정치(4Q23 26,080개 → 1Q24E 29,863개)에 부합하는 추세 / **꾸준히 QoQ 매출액을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며 회사 주요 목표였던 3Q24E 손익분기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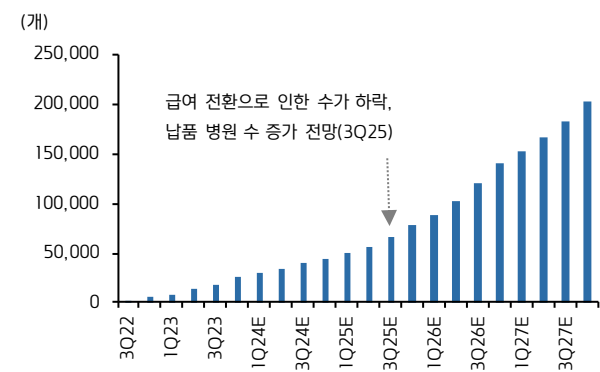
2) 'DeepCARS' 미국 FDA 허가 획득: '23년 6월에 미국 FDA로부터 'DeepCARS'의 BDD(혁신 의료기기 지정)를 획득하며 빠른 시장 진출을 노릴 수 있는 상황

'DeepCARS' 누적 도입 병원 수



자료: 뷰노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'DeepCARS' 적용 가능 누적 병상 수



자료: 뷰노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## 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2월 5일 현재 상기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## 고지사항

-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
-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